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구세주께서는 초창기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7년 만에 출옥하여 첫 단상에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하는 자유율법을 선포했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약조건이 되느냐 호조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사진을 찍으면 이슬성신이 찍혀 나옵니다

구세주께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주된 포인트가 역광에 의해서 빛이 찍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슬이라고 거짓 말하여 헌금을 거두었으니까 사기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감사가 15년 구형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판사한테 “판사님이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지만 사진을 찍으면 이슬성신이 찍혀 나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검증을 해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실금실금 웃으면서 안 찍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재판의 공정성을 가려려면 피의자가 말한 것을 전부 검증한 다음에 죄의 유무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장소에서도 주님을 찍으면 이슬이 찍혀 나올 것이라는 걸 판사 자신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내 리지도 않는 이슬성신이라는 걸 내리라고 사진을 조작해서 성도들한테 거짓말하여 헌금을 거뒀으니까 이진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고로 판사는 이슬이 찍혀 나와서 주님을 무죄로 석방시키게 되면 자기의 직책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간청을 해도 듣는 척만 척하고 징역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징역을 산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7년 동안 그러한 징역을 사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징

역을 산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구세주를 옥중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지만 되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7년 동안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옥중살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옥중살이를 꼭 해야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옥중살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7년 징역살이하면서 마귀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을 키우시다

구세주께서는 7년 동안 징역을 받은 것이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징역살이하면서 그 마귀들을 100%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예컨대 그대로 구세주의 능력이 95년도부터는 원자와 같이 무럭무럭 자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아니면 세계 인류를 다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인류 가운데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살리려면 그 사람들의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를 다 씻어야 되고 죄의 마귀의 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고 닦아내야 되는데 그 뱀속까지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죽여도 죄에 오염되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들어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귀 죽이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바 있는데, 주님께서도 7년 동안 징역살이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무량대수 마귀 일 초 동안에 무량대수 횡수로 계속해서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어겨서 성령의 맷돌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향불로 박멸소탕!” 이렇게 마귀 죽이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구세주를 만나 영생 못 얻으면 너무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

승리제단에 나오면서요 옛날 고집, 옛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은 꼭 지옥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1년, 2년만 뜨거워서 펄펄 뛰는 게 아니고 천 년 만 년 억만년 영원무궁토록 펄펄 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신은 죽음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은 타는 불이 아니며 견딜 수가 없이 뜨겁기만 뜨겁고 생명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이고 고로 마귀도 영생을 하고 죄인도 영생을 하고 죄가 없는 의인도 영생을 하고 똑같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생하는데 마귀와 죄인들은 펄펄 뛰면서 영원무궁토록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영생을 못 얻으면 그건 그야말로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의 몸으로 7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몸도 아닌 그 굉장하고도 귀한 구세주의 몸이 7년 동안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그 벌을 대신 받지 않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귀들이 멸망한다

“구세주가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전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승리자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 하나님일 까, 마귀한테 진 하나님일까?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지!”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이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만 나중에 멸망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이간자의 마음상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상태이기에, 7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하려고 이제 옥중에다가 피신을 시킨 걸로 생각하니까 옥중생활의 고통스런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됐다.”고 주님 자신을 간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 울구치소에 구속되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너, 참 운이 좋은 놈이다! 너, 하루만 늦었으면 죽었어! 너를 죽이려고 너희 집을 추적해 해서 집을 알아놓고 내일쯤 숨어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옥중에

간혀 있는 바람에 네가 살게 된 것은 이 건 참 운이 좋다!”라고 가명으로 쓴 것으로 “주소도 가짜냐가 추적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내 주소를 어떻게 쓰느냐? 이 바보야!”라는 내용까지 다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세주를 죽이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구세주가 있는 한 하늘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들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귀들이 끝장나니까 자기네들이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집권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 마귀 세상에 겁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을 걸고 구세주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을 걸고 희생적인 생활과 반대생활로 투쟁함으로써 강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해치려는 마귀의 간계가 얼마나 무서운가

교도소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자유를 빼어버린 곳인데, 사람의 생명이란 건 자유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완전히 구속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지, 그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교도소의 재소자 중에 가장 혹독한 징역을 사는 곳이라는 독방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7년간 지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7년간 살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하려고 이제 옥중에다가 피신을 시킨 걸로 생각하니까 옥중생활의 고통스런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됐다.”고 주님 자신을 간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 울구치소에 구속되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너, 참 운이 좋은 놈이다! 너, 하루만 늦었으면 죽었어! 너를 죽이려고 너희 집을 추적해 해서 집을 알아놓고 내일쯤 숨어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옥중에

살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하려고 이제 옥중에다가 피신을 시킨 걸로 생각하니까 옥중생활의 고통스런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됐다.”고 주님 자신을 간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 울구치소에 구속되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너, 참 운이 좋은 놈이다! 너, 하루만 늦었으면 죽었어! 너를 죽이려고 너희 집을 추적해 해서 집을 알아놓고 내일쯤 숨어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옥중에

살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하려고 이제 옥중에다가 피신을 시킨 걸로 생각하니까 옥중생활의 고통스런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됐다.”고 주님 자신을 간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 울구치소에 구속되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너, 참 운이 좋은 놈이다! 너, 하루만 늦었으면 죽었어! 너를 죽이려고 너희 집을 추적해 해서 집을 알아놓고 내일쯤 숨어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옥중에

살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하려고 이제 옥중에다가 피신을 시킨 걸로 생각하니까 옥중생활의 고통스런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됐다.”고 주님 자신을 간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 울구치소에 구속되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너, 참 운이 좋은 놈이다! 너, 하루만 늦었으면 죽었어! 너를 죽이려고 너희 집을 추적해 해서 집을 알아놓고 내일쯤 숨어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옥중에

이 사람이 먼저 빛으로 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화한다

주님께서 7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신 그 당일에 단상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바로 중성이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 오래 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중성이 되어버렸어. 중성자로서 완성이 되었어. 인간이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 몸으로 변해서 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불완간에 인간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중성의 빛으로 환원하여 죄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원시반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마귀 영한테 점령당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빛으로 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빛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슬성신을 먹으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이 흘러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세계는 시간이 없습디다. 그 세계는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대로 천년만년 흘러도 똑딱하는 순간에 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조금 있으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에 등불이 어두워지고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살게 됩니다.”*

7년 옥고를 치른 이후의 주님 말씀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4) 아론의 싹 난 지팡이

고리와 그의 일당들이 분수에 지나쳐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 후,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열두지파의 족장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은 들으시오. 각자 자신의 지팡이 위에 이름을 쓰시오. 다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임으로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시오. 이번에는 병적 조사에서 제외되는 레위 지파가 참여하되,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위에 아론의 이름을 쓰시오. 그런 다음에 각 종족을 대표하는 그 열두 개의 지팡이를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놓을 것이요.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택

한 자를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하셨소.”

모세는 그 열두 지팡이를 취하여 성막의 둘째 장막(지성소)에 들고 들어가서 법궤(언약궤) 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하얀 꽃이 피어 있고 아몬드 열매(almonds; 감복숭아)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싹 난

1 개역성경 민수기 16장 46절을 보면 아론의 싹 난 지팡이에 맺은 열매를 ‘살구 열매’로 번역했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샤케드(shaqed)’로 아몬드(almond)를 말합니다. 그런데 홍미로운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스 산(시내산) 이름에서 ‘라오즈’란 뜻이 바로 ‘아몬드’이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산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6장 40년의 광야생활》

(14)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지팡이를 성막 밖으로 가져 나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족장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법궤) 앞에 갖다 놓고 나머지 열한 개의 지팡이는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고리와 그의 일당들과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가문에서 계승해서 위임받을 것이라고 재차 공표하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당을 짓거나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어리석은 일은 꾀하지 마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요.”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기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2절: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3절: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하얀 꽃이 피어 있고 아몬드 열매까지 열렸다 (민수기 17장 8절)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가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안젤라